

점심먹고 심심하면 생활과 윤리

저심생운 꼬꼬영판

· 3월 4주차 ·



문항편

일주일에 5문항으로 가볍게 끝내는
생활과 윤리 주간지!

“Are You Ready For This?”

점심생운 3월 4주차

점심생운™

김지호 (저동고)
권예림 (상명대 가족복지학과)
김영우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류성민 (건국대 철학과)
배민경 (성신여대 교육학과)
서예은 (청주중앙여고 교사)
안재현 (건국대 경영학과)
양승언 (강원대 윤리교육과)
유영우 (대인고)
이동욱 (고려대 국어국문학과)
이현승 (울산여고)
진해인 (교육학 전공)
탁성용 (서울시립대 철학과)
홍찬혁 (인하대 경영학과)
김보민
문인성
서지영
이수진
이세라

외 1인

펴낸일 2024년 03월 24일

펴낸곳 점심생운™

저자 점심생운™

문의 EMAIL_ lunchethics01@gmail.com | INSTAGRAM_ @lunchethics

점심생운은 질 좋은 자료를 무료로 배포함에 있어 교육평등의 가치를 실현하는 비영리단체입니다.

본 자료의 저작권은 점심생운™에 있습니다.

내용의 일부 혹은 전체를 무단으로 게시·가공·판매할 수 없습니다.

YOU CAN DO
ANYTHING YOU WANT

점심먹고 심심하면 생활과 윤리

점심생운 모모영관

· 3월 4주차 ·

문항편

제4교시

사회탐구 영역(생활과 윤리)

성명

수험 번호

제()선택

1.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참된 인간상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철저히 특수한 종류의 위협을 필요로 한다. 위협이 알려지지 않는 한 우리는 무엇을 왜 보호해야 할지를 알지 못한다. 우리는 무엇이 위기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알 때 비로소 무엇이 위기에 처해 있는가를 알 수 있다. 악(惡)의 인식이 선(善)의 인식보다 무한히 쉽다. 따라서 도덕 철학은 우리의 희망보다는 공포를 논의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실제로 무엇을 보호해야 하는 것을 알아내는가이다.

- ① 미래 세대의 생존 문제에 대한 인식이 희망의 인식보다 쉽다.
- ②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은 책임져야 하는 당위(當爲)로 이어진다.
- ③ 행위를 하도록 북돋우는 공포가 인간 책임의 본질적 속성이다.
- ④ 미래 세대의 존속을 위협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말아야 한다.
- ⑤ 인류의 존속을 위해 미래 세대와의 상호 책임을 숙고해야 한다.

2. (가)의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D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가)	<p>갑: 고통 받는 존재의 인종이나 성, 또는 종과 무관하게 고통은 억제되거나 최소화되어야 한다. 고통이 얼마나 나쁜가는 그것이 얼마나 강렬하며, 얼마나 오래 지속되는가에 따라 결정된다.</p> <p>을: 모든 생명체는 목적론적 삶의 중심으로 자신의 방식대로 선을 추구하는 존재이다. 우리는 모든 생명체가 고유의 가치를 갖는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유의 가치를 지닌 존재의 선을 존중할 의무를 실천해야 한다.</p> <p>병: 낱알의 물음을 경제적으로 무엇이 유리한가 하는 관점뿐만 아니라 윤리적, 심미적으로 무엇이 옳은가의 관점에서도 검토하라. 생명 공동체의 통합성과 안정성 그리고 아름다움의 보전에 이바지한다면 그것은 옳다.</p>
(나)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 style="text-align: center;"><범례></p> <p>A: 갑만의 입장 B: 을만의 입장 C: 갑, 병의 공통 입장 D: 갑, 을, 병의 공통 입장</p> </div>

<보기>

ㄱ. A: 존재자의 지능이나 합리성으로도 도덕적 고려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ㄴ. B: 도덕적 지위를 지니는 대상의 범위를 모든 생명체로 한정해야 한다.

ㄷ. C: 개별 생명체를 간섭하는 행위는 그 결과를 고려하여 행해질 수 있다.

ㄹ. D: 동물을 학대하지 말아야 하는 근거는 인간의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에 있지 않다.

- ① ㄱ, ㄷ
- ② ㄴ, ㄷ
- ③ ㄴ, ㄹ
- ④ ㄱ, ㄴ, ㄹ
- ⑤ ㄱ, ㄷ, ㄹ

2 (생활과 윤리)

사회탐구 영역

3. 갑, 을 사상가 중 적어도 한 사람이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갑: 언어나 행위가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될 때에는 그는 자연인이라고 불리고, 그것들이 무엇인가 다른 사람의 언어와 행위를 대표한다고 생각될 때에는 그는 가상적, 또는 인위적 인격이다.

을: 공동의 힘을 다해 각 회합원의 인격과 재산을 지키고 보호하며, 각자가 모두와 결합함에도 오직 자기 자신에게만 복종하기에 전만큼 자유로운 회합형식을 찾는 것. 바로 이것이 사회계약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근본 문제다.

— <보 기> —

ㄱ. 시민의 최고 이익인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를 형성하는가?

ㄴ. 주권자는 집합적 존재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대표성을 지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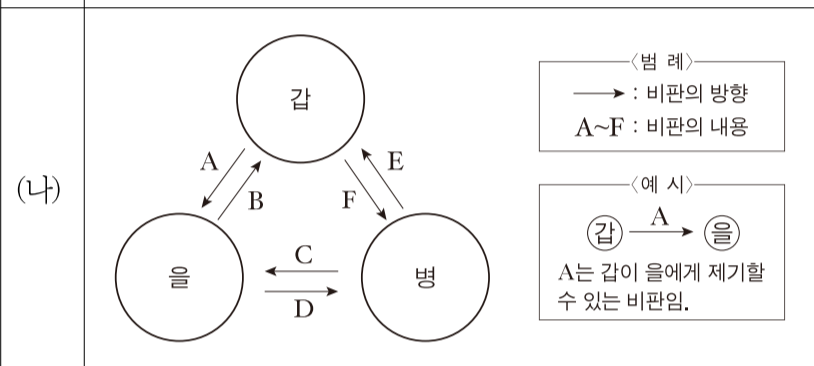
ㄷ. 소유권은 정치법의 출현 이후에 비로소 등장하는 개인의 권리인가?

ㄹ. 계약을 통해 자연 상태에서 개인이 지니고 있는 모든 권리를 양도하는 것은 아닌가?

-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4. (가)의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D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가) 갑: 형벌의 법칙은 하나의 정언 명령이다. 형벌을 면하게 하거나 한 단계 경감시키는 무엇인가를 찾기 위해 행복론의 꾸불꾸불한 길을 헤매 다니는 자에게는 고통을 주어야 한다.
 을: 누구나 일반 의지에 복종하기를 거부하는 자는 국가에 의해 강제를 당하게 된다. 국가는 모든 구성원의 생명 보존을 위해 존재하며, 사형도 같은 관점에서 다뤄진다.
 병: 사형은 주권과 법의 원천이 되는 권능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다. 법은 각 개인의 자유 중 최소한의 몫을 모은 것 이외의 어떤 것도 아니다. 법은 개개인의 의사를 대변하는 일반 의사를 대표한다.



- ① A: 살인을 했다는 것은 자신도 죽임을 당해도 좋다는 것에 동의한 것임을 간과한다.
 ② B: 삶이 아무리 고통스럽다고 하더라도, 삶과 죽음은 동등성이 없음을 간과한다.
 ③ C, E: 형벌은 시민들의 최대 행복을 위해 집행되어야 함을 간과한다.
 ④ D: 범죄에 대한 형벌의 내용은 법에 국한되어야 함을 간과한다.
 ⑤ F: 살인자뿐만 아니라 살인 교사자, 살인 공범 모두 응당(應當)히 자신의 생명을 내놓아야 함을 간과한다.

5. (가), (나) 사상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진인(真人)은 삶을 기뻐하지도 않고, 죽음을 싫어하지도 않는다. 착한 일을 행하여 명성을 가까이하지도 말아야 한다.
 (나) 전생(前生)에 뿌려진 씨앗은 이번 생에 받는 것이고, 다음 생에 거둘 열매는 이번 생에 행하는 바로 그것이다.

- ① (가): 죽음을 통해 육체라는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다.
- ② (가): 삶과 죽음은 인간이 개입할 수 없는 우연적 과정이다.
- ③ (나): 삶과 죽음은 분리되므로 생사에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
- ④ (나): 팔정도(八正道)의 수행을 통해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
- ⑤ (가), (나): 삶은 기(氣)가 모이는 것이고 죽음은 기(氣)가 흩어지는 것이다.

한가로운 시간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재산이다.
 - Socrates -

#매 순간을 마지막처럼

우리는 매일 반복되는 하루처럼 보여도,
 나름대로 한 장씩 넘어가는 하루를 달리고 있습니다.
 하루를 채우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이 잠자리에서 일어나서 따스한 햇빛을 맞는 순간,
 이미 하루는 완성되어 있을 겁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맞이하는 같은 햇빛도,
 매일 지친 몸을 이끌고 잠자리를 향하는 것도
 결코 당연하지는 않습니다.
 매 순간을 인생의 마지막처럼 살아보세요.
 후회없이, 강렬하게.

#출발점은 다를 수 있어도

소위 말하는 '공부머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 다 같은 목적지를 보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스스로 기죽지 말고,
 당신의 특별한 빛을 뽐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든든한 지지자,
 점심생윤™드림

점심생윤™

- ◎ 이메일 문의 (오류·오타자·기타) : lunchethics01@gmail.com
 - ◎ 인스타그램 : @lunchethics
 - ◎ 총괄 : 김 지 호 / 10인 이상의 비영리단체
- 점심생윤™은 보다 더 나은 교육환경을 꿈꿉니다.
 점심생윤™은 그 어떤 경우에도 고지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습니다.

Copyright ©점심생윤. All rights reserved.
 Copyright ©lunchethics. All rights reserved.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십시오.